

「인스탄트」食品과 食糧節約

「인스탄트」식품의 개발은 최소한 두가지 측면에서 절실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는 식품절약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식생활 개선의 측면에서 그렇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뿌리를 내려 「인스탄트」의 생활이 평범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물결이 들어와 「인스탄트」식품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그 수준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막대한 외화를 들여 식량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식품가공업의 육성개발로 집중되고 있는 데다가 「인스탄트」식품이 현대인의 생활편의를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발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다른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인스탄트」산업이 유망업종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 때문이다.

소득의 증대라는 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지 만 어쨌든 한국인의 식생활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스탄트」산업이 앞으로의 유망업종으로 쉽게 손꼽을 수 있다.

최근 농수산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의 식생활이 종래의 쌀 위주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지난 '82년중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보리, 밀등 양곡소비량은 192,2kg으로 '81년의 196.0kg보다 3.8%가 감소되었으나 반면에 감자, 고구마를 비롯한 육류와 우유, 야채, 과일 등의 소비량은 主食대용으로 급격히 늘어나 상당한 식생활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감자, 고구마의 경우 지난 '71년의 1인당 11.4kg에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 같은 소비실적으로 보아 식생활구조변화에 의한 식생활이 상당히 개선은 되었으나 이웃 일본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 쌀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식생활개선의 여지는 많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인스탄트」식품은 국민들의 식량절약 의식고조와 함께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히 파고 들고



尹 錫 雄
〈每日經濟新聞社 調査部長〉

있다.

60년대 삼양식품의 라면을 효시로 우리나라에 상륙한 「인스탄트」식품은 단일기업체의 생산에서 복수기업체의 생산으로 품종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되고 있는 「인스탄트」식품은 한 때 「인스탄트」식품의 대명사로 불리워 왔던 라면을 비롯하여 커피, 카레, 스프類, 분말주스, 국산茶類등 조미료 분야에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종류도 다양화되어 생활의 편의수단을 벗어나 이제 시간을 단축하여 「스피트」를 요하는 상품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분××」이 시중에 나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더니 이제 다시 「1분××」의 광고가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어 과히 생활에 쫓기는 현대인의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한 즉석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즉석식품(시간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앞으로 있게 될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까지는 적어도 세계시장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

의 식품이 개발될 것으로 본다.

당국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이른바 올림픽식품 개발을 위한 품목을 선정, 재정·기술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중점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시판되고 있는 「인스탄트」식품도 질을 높이는데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하철에 설치된 간이식당을 비롯하여 곳곳에 설치된 면류자동판매기 등에서도 서민들이 애용하는 「인스탄트」식품이 많이 팔린다고 한다.

특히 지하철 구내의 간이음식점에는 출근길에 간단한 식사로 공복을 메우기 위해—이 가운데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것도 있겠으나—「인스탄트」식품을 즐겨 먹는 인구가 점차 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인스탄트」식품 개발의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앞으로 당국의 올림픽식품 육성책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주효한다면 「인스탄트」식품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인스탄트」식품이 식량절약면에도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정책지원면에서도 적지 않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